

'조선업 위기극복 대정부 건의문' 전달

조선밀집 5개 시·도, 산업부·해수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건의

전북도는 전 세계적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업계 현장의 소리 등을 담아 조선 밀집 5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 산업부, 해수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업계의 일감확보 등을 위한 관공선 LNG 추진선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급 환급보증)발급 지원 완화, 조선업 구

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민간연장 요청과 같이 금융 지원 부문 등 3건이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조선 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을 담아 총 7건을 건의했다.

그동안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시행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업계의 인력감축 등

지구노력으로 최근 선박 수주 실적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이는 기저효과로 조선업 경기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현대 측에서 선박 건조물량 미확보로 7월부터 군산조선소의 일시 가동중단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상황으로 인해 도내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조선 밀집 5개 시·도에서 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대정부 공동

건의사항'을 채택, 건의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바라는 바롭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사항은 그동안 도내 조선기자재업체와 매주 수요일 현장지원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의 소리를 담은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신속한 반영 등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대책본부 8월 말까지 운영

전북도는 산림병해충의 예방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1일~8월31일까지 도,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책본부에서는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는 물론 산림병해충 발생과 관련한 주요인원 현장진단 및 처방 등 방제 기술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대책본부내에 기술상담반과 재산충병 전담반, 기동진단반을 운영, 재산충병의 매개충과 농림지동시발생 해충인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을 철저히 방제한다는 방침이다.

가까운 산림부서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립나무병원으로 (063-290-5442) 문의하면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기차 한번 타볼까?" 지난날 31일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열리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 시장이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전거흥보단 전주 입성 환영 캠페인 진행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전국자원봉사단원 50명을 모아 11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전거캠페인을 실시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발, 11개 도시를 7박 8일 동안 순회하는 1,400km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대전광역시를 출발한 자전거흥보단 50여명은 지난 30일 4시 전라북도 호남제일문 앞 사거리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전주지부 50여명과 만나 종합운동장(94km)까지 자전거흥보단 전주입성 환영 캠페인을 진행했다.

31일에는 정읍을 거쳐 광주광역시로 자전거흥보를 했다. /김진성 기자

도, '농촌활성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촌활성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생생마을 조성, 귀농귀촌, 농촌관광, 마을상품 판매 등 마을사업 관련 원스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통합 사무실을 혁신도시 전북산타로컬마켓 2층에 마련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주단체는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6차산업지원센터, (사)농어촌 체험휴양마을전라북도협의회 3개 단체로 23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농촌마을 사업 관련 중간지원 조직의 집적화로 생산, 체험관광, 교육, 컨설팅 사업 등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마을사업 지원단체, 마을상품 판매장, 교육장이 한 공간에 있어, 농촌마을 사업의 상담, 교육, 마을상품 판매, 농촌관광 등 원스톱 지원과 컨설팅이 가능하고 마을사업 준비자 등은 편리하게 마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농촌활력도 김경모 과장은 "농촌 활성화에는 마을기반 조성, 마을사업 운영인력 확보, 적합한 상품개발 등 개별적인 과제가 하나로 융합되어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통합 사무실 운영으로 기반조성부터 상품개발 및 판매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삼락농정의 핵심인 '사람찾는 농촌' 실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도청 로비서 '삼락 꽃 소비촉진행사'

2-3일, 꽃바구니 체험·직거래판매·반려식물 전시 등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소비가 부진함에 따라 화훼 소비 진작과 도민의 꽃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삼락 꽃 소비촉진행사'를 도청 로비에서 진행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화훼생산자연연합회와 전주화훼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꽃 소비촉진행사는 화훼농업인과 꽃가게 소상공인이 힘을 모아 도민의 꽃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꽃소비촉진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안주고 안받는다' 사회분위기로 매출이 급감하자 도에서는 화훼농업인과 꽃가게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들어 2번째 꽃 관련 행사를 연다.

행사장 내에는 다양한 꽃장식과 포토존, 꽃케익, 부케,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하게 장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속 꽃 장식을 전시하고, 농장 직거래로 판매도 한다.

도는 행사의 재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주부 꽃바구니 체험'을 진행하고, '반려식물' 전시장도 선보여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더해 준다라는 계획이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과 같은 개념으로 식물이 인간에게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파프리카와 토마토 특별판매대를 설치하여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농장 출하 가격으로 대형마트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농업인은 물론, 꽃을 유통하는 꽃가게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승진 축하로 배송되어 온 꽃(난)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받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AI·구제역 특별방역 종료

상시방역체제로 전환

전북도는 AI·구제역 재발 및 발생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5월31일자로(8개월) 종료하고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 밝혔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김제 금구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내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2017년 4월2일 익산 용안 토종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후 발생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5.31일부터 특별방역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도는 AI 47건, 구제역 1건이 발생, 닭·오리 528만 4,000수 및 한우 339두가 살처분되어 547억원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했다.

구제역은 재 입식이 완료되었으나, AI는 발생농가와 익산시 일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제외한 가금사육농가에서 입식이 진행 중이다.

발생농가 중 고창 종오리 농장은 재 입식 시일이 완료되어 입식이 가능한 상태이며 46호는 재 입식 시일이 진행 중으로 6월말까지 재 입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차단방역 우수 사례에 대해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에 전파 정보를 공유, 시군 및 읍면 동이 참여한 자체 영상회의와 나라이름 FC 회의를 실시, 실시간으로 방역정보를 일선현장까지 전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했다.

또한, 추후 담당자 변경 등으로 그간 터득한 방역 노하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우수사례에 대해 사례집을 발간 준비 중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전북도는 방역력을 유지코자 6월12일부터 30일까지(3주간) 도내 모든 소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항체검사는 7월1일부터 28일까지(2주간)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 돼지는 농가당 10두씩 검사하고 특히 소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농장을 선정, 추가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매월 백신접종 저조 농장을 선별,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 특별 관리, 취약농장은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실태와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 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